

낭창성 신염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치료 및 임상 경과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정은 · 박우영 · 진규복 · 황은아 · 한승엽 · 박성배 · 김현철

Retrospective Analysis of Patients with Lupus Nephritis—single Center Experience

Jungeun Kim, Wooyoung Park, Kyubok Jin, Eunah Hwang, Seungyeup Han, Sungbae Park, Hyunchul Ki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목 적 : 루푸스에서 신장은 흔히 침범되는 장기일 뿐 아니라 루푸스 신염을 진단받은 환자의 10–20%에서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되는 중대한 합병증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연자들은 계명의대 동산병원에서 루푸스 신염을 진단받은 환자들의 치료경과, 치료방법에 따른 신생존율 및 환자생존율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 법 : 1985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계명의대 동산병원에서 신생검을 받은 환자 중 루푸스 신염을 진단받고 적어도 6개월 이상 추적이 가능하였던 환자를 대상으로 이들 환자의 치료 및 임상 경과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 과 : 이 기간 동안 시행된 2,069예의 신생검 중 100예 (4.8%)가 루푸스 신염으로 진단되었다. 이들 환자의 평균 연령은 28.7 ± 12.2 (최소 11, 최장 73세), 남녀비는 0.1:1, 평균 추적기간은 73.1 ± 62.8 개월이었다. 신생검 당시 1일 요단백 배설량은 4.9 ± 4.0 g, 혈청 크레아티닌 1.4 ± 1.0 mg/dL, CCr 47.5 ± 24.4 mL/min 였으며 진단시 신증후군 범위의 단백뇨가 65예, 고혈압이 23예, 신부전이 26예에서 동반되어 있었다. ISN/RPS (2003) 분류에 따른 신염의 조직형은 4형이 51예로 가장 많았고, 5형이 23예, 3형 10예, 2형 8예, 1형 3예 순이었으며 4형 및 5형이 혼합된 경우가 3예, 3형 및 2형 또는 5형 혼합이 각각 1예씩 있었다. 치료로 스테로이드 단독 투여가 69예, 스테로이드 및 cyclophosphamide (CPM) 병합치료가 30예 있었으며, 1예에서는 보존적 치료만 시행받았다. 각종 치료에 대한 반응율은 병합치료군은 60%, 스테로이드 단독군은 37.7%로 병합치료군에서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치료 반응군은 무반응군에 비해 진단 당시 혈청 크레아티닌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p=0.007$), 병합치료의 비율이 높았다 (40.4% vs. 19.1%, $p=0.029$). 그러나 환자 연령, 성별 및 1일 요단백 배설량, 조직형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체 환자의 10년 신생존율은 71.8%, 10년 환자 생존율은 84.6%였다. 치료 반응군의 10년 신생존율은 100%로 무반응군의 38%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p=0.000$) 10년 환자 생존율 또한 치료 반응군 92.5%, 무반응군 73.3%로 치료 반응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0.0336$). 치료 중 39예에서 합병증이 동반되었으며 이 가운데 감염이 15예 (38.5%)로 가장 많았고, 환자 사망 12예 (30.8%), 무혈성 골괴사 5예 (12.8%), 심부정맥 혈전증 4예 (10.3%), 경부자궁암 2예 (5.1%), 관상동맥질환이 1예 있었다.

결 론 : 루푸스 신염은 스테로이드 및 CPM 병합치료를 스테로이드 단독치료에 비해 치료반응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치료반응이 있는 군에서 10년 신생존율 및 환자생존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루푸스 신염을 진단받은 환자에서 적극적인 병합면역억제치료가 이들 환자의 신생존율 및 환자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효과적인 면역억제치료에 대해서는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